

안산병원 2024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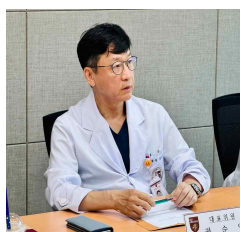


지난 15일 오후 3시 안산병원 미래의학관 8층 병원장 회의실에서 2024년 안산병원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열렸다.

사측은 대표위원인 권순영 병원장을 비롯해 배재현 기획실장, 강신관 경영관리실장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참석했다. 노측은 대표위원으로 송은옥 지부장과 전임간부, 이문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석했다. 한편, 노동조합에서 최삼호 총무부장과 김진아 선전부장이 새로운 위원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순영 병원장, 현재 상황 좋지 않아 최악의 경우도 준비해야.

권순영 병원장은 “의료원에서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 총선 뒤 변화를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정치권을 통해 상황을 호전시키는 분위기가 만들



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베스트를 기대하지만 워스트를 상정하고 준비하자고 말했다” 라고 말하며 병원운영에 대해 걱

정 섞인 인사말을 전했다.

송은옥 지부장, 직원들도 함께 고통분담 하고 있어.

송은옥 지부장은 “병원장으로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 저희도 총선이 끝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크게 얘기가 없었다. 보건의

료노조도 16일 대통령 입장 발표를 보고 움직일 것 같다.” 라고 말했으며 “요즘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들 걱정을 많이 한다. 우리 병원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병원 구성원으로서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다. 그래서 직원들도 무급휴가 등을 쓰면서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있으니 힘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유일한 공식기구가 바로 산안위다.

조그만 사건 사고가 쌓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안위를 통해 사소한 안전이라도 꼼꼼히 살피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상식, 현장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이 근로기준법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탄》 2024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1. 최저임금 : 9,620원 -> 9,860원

2.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급여 인상 : 3+3에서 6개월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6+6 부모 육아 휴직제’는 자녀의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6개월 연장되어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200~4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 및 결과 >

안전		답변
지난 산안위 이행 점검 건	【위험성 평가시 노동조합 참여】 2023년 3/4분기 산안위에서 위험성 평가 시 노동조합 참여 요구안에 대해 연 2회 노사합동점검을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합동점검시 사용할 체크리스트 등 노사가 세부사항을 정하자.	알겠다. 노사점검 실무 담당자를 노사 각 3명씩 구성하고 상반기는 병동, 하반기는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점검하자. 추가로 점검을 원하는 부서는 노조에서 알려주면 반영하겠다.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내멘트 송출】 일부부서에 적용중인 안내멘트 송출 시스템을 전 부서로 확대하자.	현재로써 계획된 지출 외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유지비는 들지 않는다고 하니 도입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전 실무회의 위상 조정】 산안위 안전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로 격상하자. 실무회의는 논의로 끝나는 데에 비해 소위원회는 일정정도의 권한이 있어 안전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무회의가 소통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격상할 필요가 없다.
	【도급업체 안전보건협의체 노동조합 참여】 산안법 64조 도급인(병원)과 수급인(주차, 미화 등 협력 업체)을 구성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회의록도 공유해 달라. 노조참여를 통해 안전의 더 많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노조에서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 도움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 입장을 전달해달라.	참여관련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렵다. 업체에서도 부담스러워 한다. 회의록 공유가 필요하다면 열람은 가능하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의 업무 방안 마련】 외부고객 간 발생한 사고 또한 원내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자.	의견은 알겠다.
	【공상추정제 기준 마련】 공상추정제란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을 밝히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상추정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자. 공상추정제를 통해 부서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더욱 손 쉽게 직무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방향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큰 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 단위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건	【방재센터 1인 근무 금지】 앞으로의 사고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인력충원 비용은 크지 않다. 신속한 대응을 통한 병원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인력문제는 의료원에서 할 수 있다. 저희입장에서도 안전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인력을 투입하면 좋은일이나 여기서 인력충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기 힘들다.
	【병동 서브스테이션 프린터 위치 개선】 프린터가 책상 아래에 있어 출력물을 꺼내는 과정에서 허리를 자주 숙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부서의견 수렴 후 조치하고 완료되면 노조에 전달하겠다.
근로자의 유해 및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건	【손목보호대 지급부서 확대】 중환자실 외에 손목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에 확대 지급하도록 하자.	원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다. 부서 내 실제 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하는 등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3개 병원 노사 실무자가 만나봐야 할 것 같다.
	【시설팀 근무복(하의) 질 개선】 기능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하의로 개선하자.	구로병원과 함께 샘플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제품이 확정되면 코드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